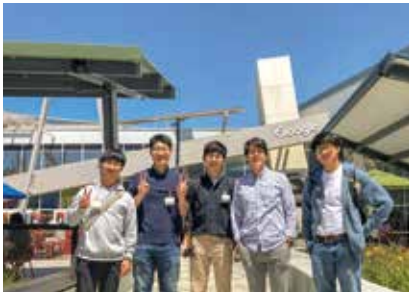


한동인 Magazine

Vol. 10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Special Theme

- 04 사랑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장순흥 총장
- 06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다.
오선택
- 08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개원 준비 순항중

People

- 10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곳
한동
홍집펠이팩티브마이크로브스
지요셉 박사
- 12 2018 대한민국 인재상,
폴브라이트 장학생
이원동 동문

Inside

- 14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시나 프로젝트
- 18 한동에 문학이 내리다
- 22 K-MOOC
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디자인 권애경디자인연구소



함께 엮는 갈대상자

24 기도와 후원으로 엮는
7000 갈대상자

26 여호수아 장학금이 있어,
한동에서 하나님의 꿈을 꿈꿨다.

30 마음 따뜻한 한끼!
한동만나!

32 외국인 학생 인터뷰
콰데시 플라구스, 타미무나

34 집 떠난 자들이 만든 또 하나의 집,
국제관 국가별 커뮤니티

38 한동을 소개합니다. "나누미"

40 한동에서 성경 끝까지 읽어봤니?

44 나는 한동이 좋다!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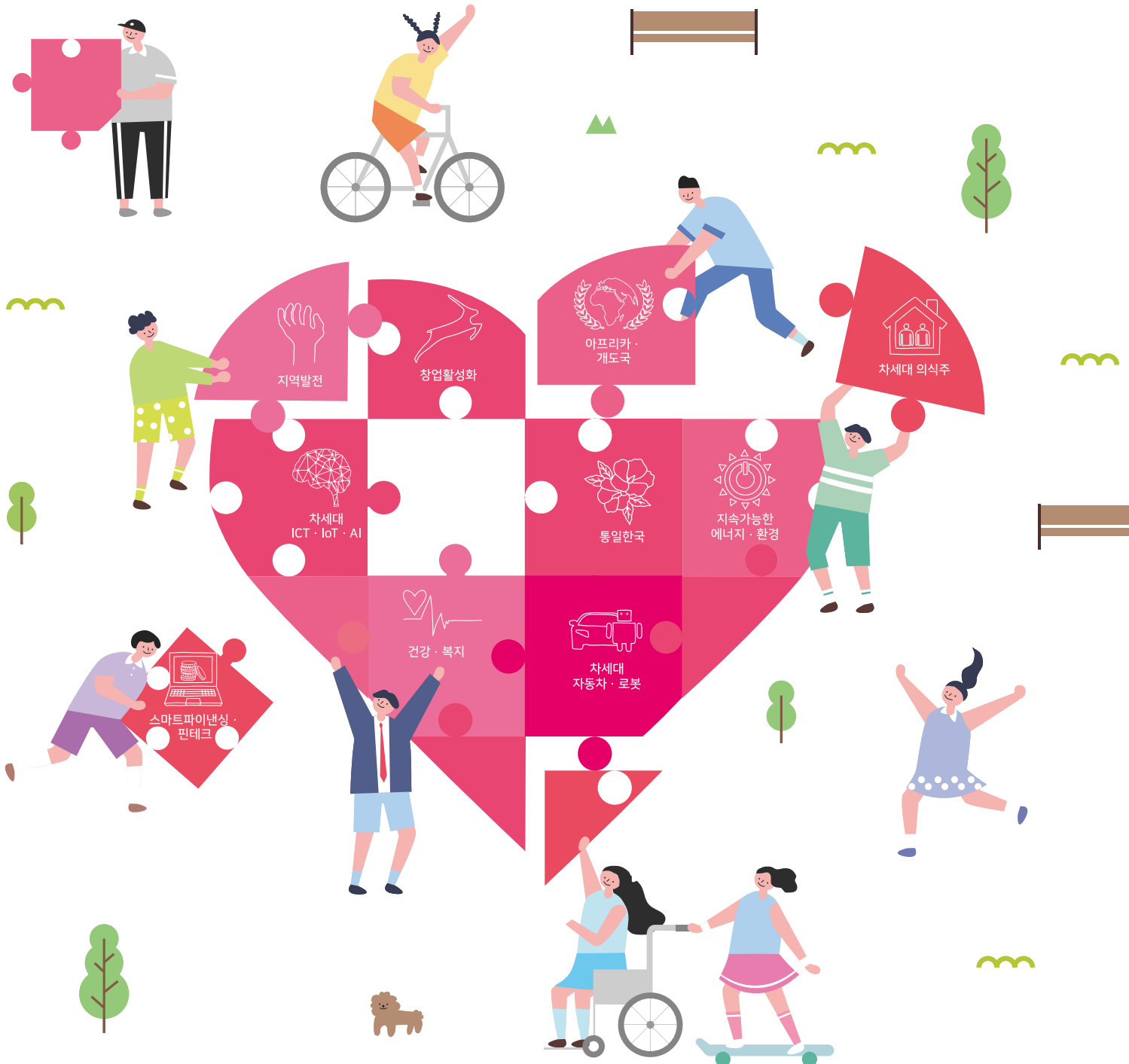
46 한동툰

47 후원 안내

48 기부자 명단

사랑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한동대학교는 개교 때부터 “Why Not Change the World?”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전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장의 문제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들을 10대 프로젝트로 선포했다.



Change the World with Love & Wisdom

장순홍 총장



10대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취지는?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두가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신앙적인 대학이 되는 것, 그리고 두번째는 혁신적인 대학이 되는 것 입니다. 우리 학교의 표어가 'Why not change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10대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앞으로의 대학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나 지방대학교는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면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지역발전'입니다. 지역발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들은 세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은 대학들은 지역을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MIT나 스탠포드 등의 대학들을 보면 지역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좋은 대학이 지역을 바꿔 놓는 것을 보고 한동대도 지역을 먼저 생각하자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0대 프로젝트는?

저는 10대 프로젝트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위가 끊임 없는 물의 흐름의 바꾸어 놓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대 프로젝트는 더 구체적이고, 지역과 세계를 품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비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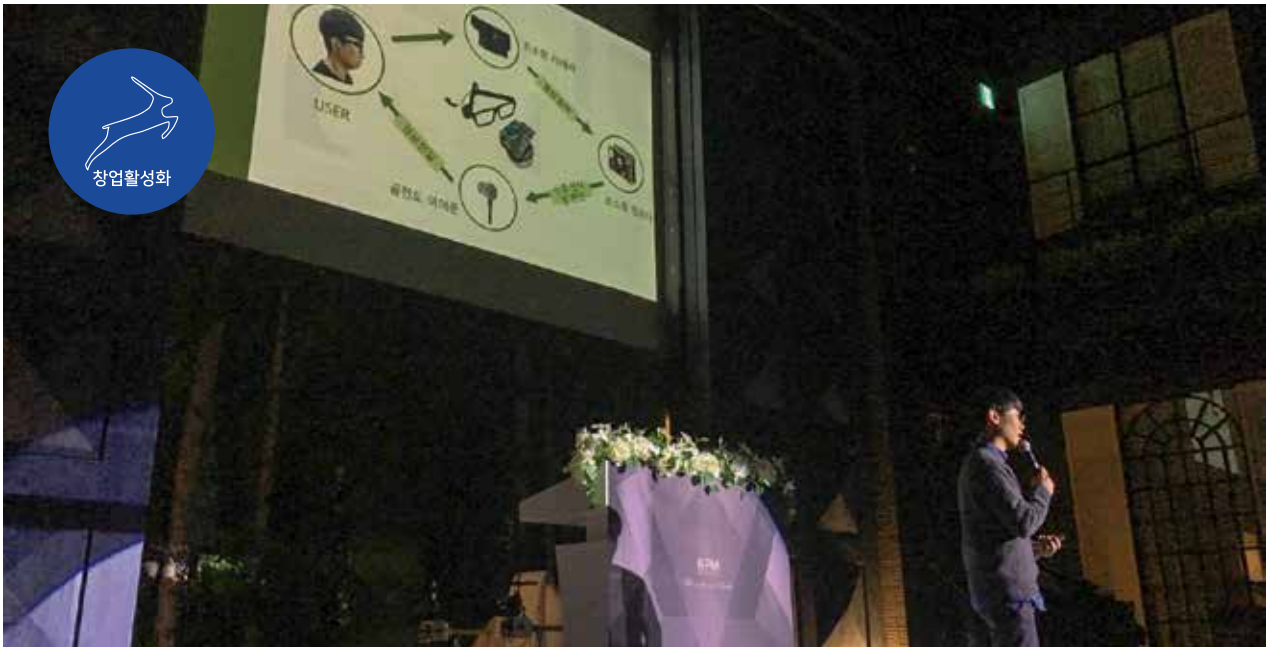
학생들이 10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학생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10대 프로젝트의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학교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막막하지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동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Know how'보다 'know what'의 시대입니다. 10대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그림으로 그려지길 기대합니다.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다."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창업경진대회(RPM: Revolutions Per Minute)이다. 'RPM'은 '주어진 투자 유치 설명회 및 발표 시간 동안 혁명을 일으켜라'는 의미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한동의 슬로건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창업 발표 대회이다. 매년 교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가진 팀을 선발해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에 파견한다. 수상한 학생들은 파견된 나라에서 선진 스타트업 체험 및 현지 탐방 등을 위한 파견 특전을 제공해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제6회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실리콘밸리로 인턴ships을 다녀온 오선택 학생을 만났다.



Interviewee



오선택 (기계제어11)

창업경진대회 아이템과 참여 동기는?

저희팀의 아이템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도로횡단 보조기구입니다. 저희는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라는 슬로건을 마음에 품은 기계제어공학부 4학년 3명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졸업연구를 위해서 연구 주제를 찾던 중, 저희가 마음에 품은 슬로건처럼, '세상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머신비전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주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논문들을 읽고 고민한 끝에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은 독립 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가장 큰 원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의 불빛색을 판단할 수 없는 것'과, '자신의 위치가 횡단보도 위인지 차도 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횡단을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정말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RPM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험을 나눈다면?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면 인턴십, 사람들과의 만남, 여행입니다.

먼저, 인턴십은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법을 배우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했던 회사의 권석원 대표님께서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실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인사이트'와 우리 아이템에 대한 평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많은 Conference에 참석하면서, 회사들의 아이템들을 보고 엔지니어로 일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인 동향이나 기업의 동향 등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배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여행입니다. 미국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학설계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리콘밸리를 떠나기 전, 두명은 대학원으로, 한명을 취업의 길로 진로를 결정해서 아쉽지만 아이템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보니, 창업을 하고 싶은 열정도 생기게 되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한동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며 꾸준히 아이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비전-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의 교과로 컴퓨터의 눈인 카메라를 사용해 컴퓨터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는 것을 배우는 수업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 개원 준비 순항중

한동대 핵심 사명과 가치의 전세계 전파와
한동 공동체 부흥의 소망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가을학기부터 제공



- ① 전체 건물의 위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 ②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있는 김영길 초대총장
- ③ 매일 이른 아침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현장 책임자들을 격려하는 장순홍 총장과 공사 관계자들.

후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가운데 2017년 7월 기공식을 한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Ban Ki-moon Institute for Global Education in Support of UN Academic Impact, 이하 반기문 IGE)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공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건물 내외장 공사가 한창이다.

반기문 IGE의 그레이스 스쿨 (GRACE School: Globally Responsible & Advanced Citizenship School)은 한동대가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정립한 지성, 인성, 영성의 통합 전인교육을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인 세계시민교육의 틀로 확장하여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39), 복음의 전파(마 28:18-20)와 문화 명령(창 1:28)의 수행이라는 한동대의 핵심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창조질서를 재건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21세기의 느헤미야(느 6:15)를 길러내는 것이 그레이스 스쿨의 핵심 미션이다.

오는 5월27일에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가을학기부터 정식 학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레이스 스쿨에서는 한동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과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과 해결 역량, 파트너쉽과 협력 등을 학과목으로 가르친다.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과 현장의 실습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실사례와 모범을 전세계에 보일 것이다.



공사 현장을 방문한 김영길 초대총장과 한동대 교수. IGE 건물의 설계와 시공,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을 맡은 졸업생 동문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국제사회가 21세기의 미래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을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은 반기문 IGE의 그레이스 스쿨이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이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추진중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있어 그레이스 스쿨의 핵심 역할을 인식하고 주목하고 있다.

그레이스 스쿨은 한동대가 유엔 아카데미임팩트(UNAI), 유네스코 유니트윈(UNITWIN), OCED 인턴십 협약 등 3개의 주요 국제기구와 공식 파트너십을 가진 유일무이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글로벌 교육 공헌의 완성이자 최종 지향점이 될 것이다.

2019년 개원 이후 학생들은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서관(가칭 “창조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면학에 집중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가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을 활용하여 전세계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수업과 강의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기문 IGE 건물 안에 위치할 가칭 “한동 역사 기념관”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역사와 정체성을 한동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계승하며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 선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한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후원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산물인 그레이스 스쿨을 통해 한동대가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고, 통합적 전인교육을 통해 변화받고 훈련된 국내외 학생들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전을 한동의 공동체와 함께 소망한다.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와 한동대

국제사회에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시민 양성과 교육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립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10년 유엔에서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글로벌 난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하여 고등교육 기관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책임지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구상을 소위 유엔 아카데미임팩트(UNAI)라는 이니셔티브로 발족시켰다. 한동대는 2011년에 아시아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UNAI의 10개 허브대학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Korea)의 발족을 주도하였다.

2015년 국제사회와 유엔은 앞으로 인류가 함께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글로벌 과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정리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육,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이의 시행을 위한 UNAI의 핵심 역할을 유엔총회의 결의안으로 매년 채택하고 있다. 한동대의 반기문 IGE는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UNAI의 중점 추진분야를 이행하기 위해 건물을 세우고 관련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UNAI의 출범부터 한동대의 허브대학 지정, 그리고 반기문 IGE의 설립과 그레이스 스쿨 운영에 이르기까지 김영길 한동대 초대총장이 UNAI Korea의 회장으로 한동대학교와 협력하여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곳, 한동

홀잡펠이펙티브마이크로브스 지요셉 박사

홀잡펠이펙티브마이크로브스는 한동대학교 빌헬름 홀잡펠 석좌교수가 이끌고 있는 팀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여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를 하고 있는 지요셉 박사를 만나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 01학번 지요셉입니다. 경영경제와 IT로 전공을 시작했지만, 군대 다녀와서 식품과학을 2전공으로 변경해 경영경제와 식품과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02학번과 캠퍼스 커플로 7년간 교제하다가 2010년 결혼했으며, 두 딸의 아빠입니다.

현재 연구활동을 소개한다면?

저는 사람의 장, 피부 등에 있는 전체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해서 연구하며,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염증성 장질환, 비만,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바꿈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아직 단순한 건강보조제 정도로 여겨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인체시험과 무균쥐 실험들을 통해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파마바이오틱스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직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통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염증성 장 질환 등의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식품과학 그리고 식품 발효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식품 발효를 통해 세계 모든 곳에 사람의 사회가 있듯이 미생물의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복잡한 미생물의 사회를 탐구하다 보니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발효식품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조절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효식품의 미생물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나요?

연구소에서는 현재 동물실험 및 인체시험을 통해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비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 학술지와 학회에서 다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치에서 유래한 발효 미생물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조절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곳의 병원과 함께 1000개의 인체 유래 분변과 혈액을 수거하여 염증성 장 질환 환자 맞춤형 의학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자동화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광고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의 과제를 받아



교내에 무균쥐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없는 실험용 쥐)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해당 설비 구축을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사람에게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규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희는 현재 사람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피부의 건조함이나 축축함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사람의 피부 미생물 조절을 통한 피부 건조 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한동은?

연구자로 느낀 한동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한동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동대는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교육자로 느낀 한동을 말하자면, 풍부하며 전인격적인 교육은 분명한 한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큰 기쁨입니다.

학부생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당연히 지금의 아내와 캠퍼스 커플로 연애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한씨네라는 영화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의 추억과 군대를 전역하고 전과를 하는 바람에 복학한 4학년의 나이로 생명과학부 새내기들과 같이 유기화학, 일반미생물학 스터디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한동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직 다수의 이공계, 생명과학과 학생들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수한 과학자들이 일궈놓은 업적을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흘린 땀의 가치와 울고 웃으며 연구하는 과정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창조성과 열정이 고맙지만, 아직은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지식과 연구를 해보지 않은 티가 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꾸미지 않고 현실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의 관계중심으로 커갈 수 있던 이면에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던 고생스러운 삶이 큰 역할을 했듯이, 일정 부분의 생명과학 지식도 더디고 고통스러운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만 배워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2018 대한민국 인재상, 풀브라이트 장학생

이원동 동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UIL(US & International Law)과 국제지역학을 전공한 07학번 졸업생 이원동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UCI) 대학원의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끔 이 곳 기숙사의 밤 하늘을 바라보며 태평양 건너 지금도 피어 나고 있는 한동의 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서로 별이 되자”라는 한동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종교적 자유(religious freedom)가 어떻게 인간적 번영(human flourishing)과 사회 변혁(transformation)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engagement)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 대학원 정치학과에 재학중인데, 한 학기를 어떻게 보냈나요?

다행히 이 곳의 날씨가 좋아 몸과 정신에 큰 이상 없이 한 학기를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수업, 리딩, 과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감과 부채 의식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작년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해라 북적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남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대답을 잘 해 준 것 같지는 않네요. 비주류 “아시아계” 유학생으로서 타문화권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양의 신비로움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려 합니다.

학업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건디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사실 힘든 시간을 건디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학업의 기회와 혜택들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바람들을 접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정신이 차려집니다. 한동대 재학 시절 새벽마다 신문배달을 하시던 부모님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근처의 흥해읍과 반대편의 육거리를 오가며 하루에 과외를 4번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막차를 타고 돌아와 다음날 있을 중간고사를 위해 새벽에 오석관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 시험에 늦어 버렸습니다. 벼락치기가 몸에 배어 있던 터라 당연히 시험을 망치게 되었고,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다음학기 장학금 생각에 3층 매점 구석에서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최소한 내가 부차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소감 및 수상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일반부문”의 수상자로 선발되었는데, 많이 부끄럽고 사실 “인재”라는 단어는 저랑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저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치관, 그리고 주어진 제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태도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동대에서 UIL과 국제지역학을 복수전공하며 글로벌 이슈들에 참여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들(예: 대학생 모의유엔대회 영어부문 외교통상부장관상,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리서치(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유엔한국협회 청년대표 등)과 졸업 후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국내외 도시재생 및 지역 자산 공유 방안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세계 시민사회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기존의 일방적인 단일국가 중심의 해결책을 넘어 교회공동체를 비롯한 로컬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성을 창출해 나가고 이



러한 청지기적 책임의식을 일상에서 확산 해 나가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저의 비전이 인재상의 취지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학교 생활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전공을 3번이나 바꾸고 똑같은 교과목을 4번까지 드롭(drop)했던 팔랑귀형 학생이었습니다. 또 경영학·경제학·사회학 입문 뿐만 아니라 공대 전공과목들까지 기웃거리다가 학기 시작 후 초반 3주를 다 날려 먹은 적도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어쨌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했다고 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1년에 몇개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부 외 다양한 선교 공동체를 비롯하여 농구 클럽, 통·번역 동아리, 동아시아법학회 등 조금씩 여기저기 활동을 했어요. 어찌 보면 한동이기에 이 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서로 다른 색깔과 관점의 단체들을 열린 마음으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라진 기독교대학 발전위원회와 개혁주의세계관 리더머스 학회를 통해 만난 형들과의 교제는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재학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07학번으로 한동대에 입학한 그 해 3월 첫 엠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해 등록금 납부 마감을 며칠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연히 한동대에 재직 중이던 한 교수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 계기로 한동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학기 시작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한스트)에서 처음으로 팀 교수님을 배정 받았는데, 정말 믿기 어렵게도 저희 팀에 배정된 교수님이 몇주 전 저와 전화 통화를 했던 바로 그 교수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교수님이 저를 당신의

팀 학생으로 넣으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 분의 일 이하의 확률로 교수님의 팀 학생이 되었어요.

한동의 후배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동의 정체성은 기독교대학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대학은 교회나 신학교와는 다른 독특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시대와 공명하는 가운데 “어떠한 지식을 창출하고 어떠한 욕망을 재생산해 내는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공동체인 한동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문과 배움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 한번쯤은 “끝까지” 고민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한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옆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과학(Science)을 하고 어떠한 담론을 생성해 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한동을 거쳐가는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및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도 기독교 학문·교육기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국사회(교회)의 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사회적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세계의 회복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시나 프로젝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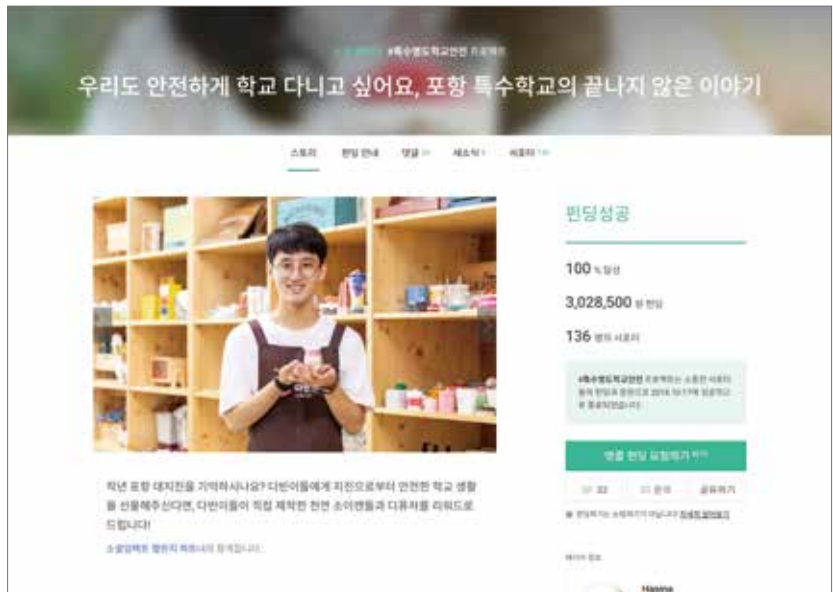
재난은 ‘취약 계층’의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하지만 재난 관련 매뉴얼에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난 현실 속에서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포항에서 진도 5.4 지진이 일어났다. 포항 시민들은 온몸으로 그 공포를 경험했고, 재난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며 생존을 위해 힘썼다. 재난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었다.

한동대학교 17학번 최현중·송예찬으로 구성된 '하시나(hashina)' 팀이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시나는 포항의 유일한 특수학교 '명도학교'를 찾아 그들을 돕기 위해 '특수명도학교안전 프로젝트'라는 리워드형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선한 가치를 실행에 옮기며 비전을 늘 공유하는 최현중(ICT창업17)·송예찬(콘텐츠융합디자인17)입니다.

팀이름 '하시나(hashina)'를 소개해 주세요.

하시나(hashina)는 히브리어로 '아름답다'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여기자는 뜻이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불편하고, 소외된 이웃들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시나'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하시나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2017년 11월 포항 큰 지진을 그 누구보다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밖으로 대피하고, 추위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리는 등 정말 막막하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에 스친 한 가지 작은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피하기 어려웠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했을까?' 이 작은 질문은 저희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와디즈의 소셜 임팩트 챌린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요”

최현중(ICT 창업 17)
송예찬(콘텐츠융합디자인 17)



프로젝트 대상으로 포항 명도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진 발생 이후, 저희는 인터넷과 현장을 둘러보며,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과 지원상황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포항에 있는 여러 장애인 단체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우연히 포항에 유일한 특수학교 명도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명도학교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이곳의 학생들을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시나 팀은 포항 명도학교 학생들의 '재난 상황시 안전한 대피'라는 가치를 통해 후원을 받아 모은 돈으로 재난 안전물품을 구입하고, 서포터들께는 명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향초와 디퓨저라는 리워드(보상)을 드린 것이죠.

하시나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후원을 받았죠?

크라우드 펀딩의 사전적 정의는 불특정 다수에게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이전까지는 기업 또는 단체가 특정 대상에게 본인들의 제품, 서비스를 알리고 미래 시장성이 얼마나 가치있느냐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돈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기업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개인, 심지어 학생들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알려 자금을 후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리워드 방식입니다. 리워드, 즉 보상 방식인데요, 서포터들이 저희에게 펀딩을 하면 저희는 그 대가로 어떠한 물건 또는 서비스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킨 기쁨을
표현한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명도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재난대피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초반 기획부터 마케팅, 유통, 광고, 회계 등 회사의 모든 부서의 일을 한 번씩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선택한 영향력을 더 널리 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 생겼습니다!



목표달성 축하합니다.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미만이 아니라
재미와 약간의 스릴(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의미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려운데
의미에 재미를 함께 버무려서
주는 분, 받는 분, 구경하는 분 모두 해피한 인생!
편당 참여자 김**님의 후기

제 친척언니는 후천적인 지적장애를 갖고 생활하고
있어요. 혼자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준 학교나 센터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마
음 다들 감사합니다.

(편당 참여자 멀***님의 후기)

응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네요.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이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편당 참여자 북***님의 후기)



편당을 성공해서 물류, 포장, 배송 작업이 남았는데 이게 상당히 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
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모두 저희 프로젝트의 가치에 크게 공감해주시고, 흔쾌히
포장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저희도 크라우드 편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했지 이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본 경험
은 없었습니다. 첫 도전이자, 시도여서 정책이나 필요한 서류, 정보들이 너무 부족해서 진행하
는 과정에 있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리워드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리워드 기획과 홍보,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소비를 이끄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학부 공부에서 배운 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노력했는데 결과로 잘 드러
나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결국 가치소비를 위해 홍보 채널을
지인에게 주력하다 보니, 좋은 일을 권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
매하는 듯한 기분도 들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이 선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
는데, 저희가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전략을 짰던 것들이 들어 맞았다는 게 신기하
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지만, 저희가 한 일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과 작은 일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당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과 제품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
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에 문학이 내리다

2018년 한동에도 첫 눈처럼 문학상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내렸다.

한동의 'Why not change the world?'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소통이 더 잘 되는 사회,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의 제1회 한동 문학상은 시, 단편소설, 희곡 및 시나리오, 수필, 문학·미술·영화 평론의 다양한 분야에 재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제1회 한동 문학상을 제정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종록 교수를 만나 한동 문학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동문학상을 말하다.

김종록 교수(글로벌리더십학부)



한동문학상의 제정 계기와 목적은?

한국의 대부분 대학에는 그 대학의 이름을 붙인 문학상이 있습니다. 한동대도 개교한 지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문학상을 제정할 때가 되었고, ACE 사업단의 도움에 힘입어 2018년에 한동글쓰기센터에서 드디어 한동문학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학상은 한동인들이 문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문학적 역량이 있는 한동의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학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학생다운 감수성과 창조적 상상력과 형식적, 미학적 완성도 등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일상적인 감각이나 한동 학생다운 교훈을 쓴 작품이 많았지만 문학적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또한 응모한 장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작품도 다수 있었습니다. 시를 쓰면 시적 감수성과 표현이 있어야 하고, 시나리오를 쓰면 시나리오로서의 생동감과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르를 넘는 창의성도 좋지만, 그것이 도리어 장르의 성격을 지키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글쓰기의 기본이 튼튼한 것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작품이 어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 한글 글쓰기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잘 보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문학상 심사에는 글로벌리더십학부의 김윤규 교수님, 류대영 교수님, 제가 참여했는데 앞으로 한동의 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이사학 학우가 시 부분에 당선되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평을 해 주신다면?

임이사학 군의 시들은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학생들의 작품에 비해 월등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이사학 학생의 시는 전체적으로 습작 경험이 많이 묻어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 실험과 퇴고를 거친 흔적이 있고, 사물과 삶을 연결하는 이해도가 아주 높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 군의 시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각적 시어를 절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는 다른 장르보다 타고난 감각이 중요한데, 임 군은 시적 재능과 아울러 평소 시를 써 온 능숙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청년기의 소박함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인데 아무래도 좀더 폭넓은 독서와 습작의 경험이 더 쌓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글쓰기의 기초를 완전히 습득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글쓰기 기초는 반복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고, 그런 기초에 충실한 글은 비록 좋은 글은 아닐지라도 바른 글은 될 수 있겠죠?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른 글쓰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고 기초에 충실한 글쓰기 연습을 계속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한동 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 임이삭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지역학,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16학번 임이삭입니다.
제1회 한동 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동 문학상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평소에 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시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동문학상 참가를 하려고 보니,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아서 조금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수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시를 용기있게 내어놓고, 편한 마음으로 평가를 받아 보고 싶어 한동 문학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동 문학상의 핵심 개념인 소통, 성숙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면?

성숙한 사회는 구성원 간의 소통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성숙한 사회를 위한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것이 SNS나 인터넷 등의 간접적인 소통 방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듯해 아쉽기도 합니다. 문학은 분명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와 문학이 담아내는 우리들의 감정,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감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제1회 한동 문학상 당선작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상은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가장 솔직한 감정을 적으며 시와 대화하려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한동이 되기를 바라며, 저에게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심지영'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대여, 나의 바람

옷깃 새로 스며든 그대의 향기가 내 몸을 감싸고 돕니다.
그 바람이 낯설기만 했던 오늘, 향기만 가득합니다.
바람은 흘러보내야 합니다. 내가 간직할 것은 소박한 향기일 뿐,

그대여, 나의 바람.



시를 쓰기로 마음먹은 후 가장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대여, 나의 바람에서 '바람'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에겐 향기를 담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누군가에겐 무언가를 소망하는 '바람(wish)'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향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만, 바람은 홀연히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랑도, 인연도, 추억도, 다 이러한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향기만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축

축에 걸렸다.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연명하기 위한 미련인가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삶을 근절하기 위한 지혜인가
끝내 보지 못한 척
내 모든 돌의 사활을 건다. 혹은
상대의 아량을 바라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삶에 대한 구결인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미련하기 짝이 없다. 축에 걸렸다.



‘축’은 바둑 용어입니다. 어렸을 적 삼촌에게 바둑을 배우면서 그 매력에 푹 빠졌던 저에게는 ‘축’이라는 개념이 그저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바둑돌이 상대편 바둑돌에 의해 축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잡히지 않으려 도망가도 결국 상대의 돌이 놓여 있는 반대 축 앞에서 죽은 돌이 되고 맙니다. 목적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던 스스로의 모습을 축에 걸린 바둑돌에 비유하여 쓴 작품입니다.

야경

짧은 추억들 속에 셀 수 없이 밝아오는 불빛 옆엔
꽤나 많은 불빛들이 이미 등을 돌린 수많은
나를 스쳐갔고 어둠이 있다는 것

불빛들은 오늘 나는 잠시나마
나를 뒤로한 채 불빛 옆에 서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둠 속으로 잠든 그대를
 불러보았다.

꺼진 등불에 돌아서는 어둠은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

꺼져가는, 꺼져버린 등불마저도
너의 일부라는 사실을
왜 그땐 몰랐을까



미국 시카고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본 도시의 야경이었습니다. 낮을 놓고 수많은 불빛을 보다 문득 깨달은 것은, 그 많은 불빛 옆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끊임없이 화려하게 빛나는 수많은 불빛, 그러나 그 화려함 곁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돌봐야 할 어둠과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호텔 방에 들어와 무작정 써 내려간 시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K-MOOC

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K-MOOC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2015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MOOC이다.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K-MOOC는 2018년 69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90개의 강좌가 진행 중이다.

한동대학교는 2016년부터 K-MOOC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K-MOOC는 대학의 우수한 강사를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다. 한동대는 K-MOOC 사업 선정으로 3년간 총 4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강좌 개발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017년 한동대는 ▲세계 10대 미술관 여행(언론정보문화학부 강두필 교수) ▲파이썬 프로그래밍(글로벌리더십학부 김경미 교수) 두 개 강좌에 기존에 개발했던 ▲중독의 심리학(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신성만 교수) 강좌까지 총 세 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통일 한국 준비와 조망(법학부 송인호 교수 외 6명) ▲파이썬으로 배우는 기계학습 입문(전산전자공학부 김영섭 교수) ▲서양철학산책(글로벌리더십학부 손화철 교수)으로 모두 6개의 강의를 제공했다.

한동대 교수 7명이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통일 한국 준비와 조망’은 통일 문제를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바람직한 통일관 및 수강생의 전공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양 수업이다. 이 강의는 남북 관계의 이해, 통일의 방법, 북한의 경제와 기술 현황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해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 정서적 적응을 돕는 방법과 한반도와 관련된 국제관계를 배우게 된다.

김영섭 교수의 ‘파이썬으로 배우는 기계학습 입문’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 기초해 기계 학습의 원리 및 적용을 배우는 강의다. 기계 학습은 인공 지능(AI)의 한 분야다.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다. 이 강의에서는 기계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경망 구현과 학습 분석을 진행했다.

2019년 한동대는 ▲현대 세계관의 이해(ICT창업학부 최용준 교수) ▲웹 앱 디자인(글로벌리더십학부 김군오 교수) ▲법률가와 정치(법학부 이국운 교수) 등 세 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한다.



세계 10대 미술관 여행

중독의 심리학



통일 한국 준비와 조망



파이썬으로 배우는
기계학습 입문
Why not change the world?



서양철학산책



파이썬 프로그래밍

세계 10대 미술관 여행을 강의하고 있는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강두필 교수는 “K-MOOC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들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무엇보다 미술을 K-MOOC에서 다루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양수업으로 듣지만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K-MOOC 강의에서 미술 자체의 즐거움, 미술관을 다니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강두필 교수는 강의를 통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 미술관을 찾아가보고 싶은 사람, 그림 앞에 서서 내 발로 가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림과 대화해 보고 싶다, 평생을 알고 있던 미술관 말고도 다른 미술관을 가 봐야겠다 하는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다.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리더십학부 손화철 교수의 ‘서양철학 산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철학자 탈레스에서 니체까지 서양철학의 중요한 학자들과 저서를 소개한다. 강의는 역사적 사실과 지식의 나열이 아닌, 철학자의 사상과 오늘 우리 삶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018년 서양철학산책 강의를 시작한 손화철 교수는 “철학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좋겠다”라며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강의로 쉽게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K-MOOC 강의를 통해 철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좋겠고 막연하고 어렵다는 편견이 없어지고 철학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진 흥미로운 주제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도와 후원으로 엮는 7000 갈대상자

2017년 제2의 '7000 갈대상자' 후원운동이 시작되고, 한동을 하나님의 대학으로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후원자들과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2018년 5월 한동가족목회자 모임을 시작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한동가족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01 누구보다 뜨겁게 중보합니다 한동가족목회자 경기지역 모임

2018년 10월 16일,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진행된 한동가족목회자 모임에서는 이재훈 이사장과 장순흥 총장, 김영애 사모의 메시지와 통일한국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심하영 졸업생이 간증을 나누었다. 또한 한동대학교의 기도제목을 전하며 '7000 갈대상자' 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한동의 정체성을 지키는 한동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02 믿음의 눈으로 한동을 바라봅니다

한동가족목회자 대구·경북지역 모임

2018년 11월 19일, 한동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구경북지역의 한동가족목회자 모임은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이재훈 이사장과 장순홍 총장, 김영애 사모의 메시지, 그리고 한동에서 배운 배워서 남 주는 정신으로 지역 교회를 섬긴 조혜상 재학생의 간증을 전하였다. 특별히 한동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모임은 가족목회자들을 환영하며, 재학생들을 대표해서 피치파이프, 걸스카펠라 동아리에서 특송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학부모님들께 선물하였다. 처음으로 한동대학교에서 열게 된 이번 모임은 믿음의 눈으로 한동의 앞 길을 바라보며, 한동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동을 맡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한동가족목회자 모임은 서울, 경기, 대구경북 총 3차례 진행되었다. 올해는 전국의 학부모기도회와 연합하여, 한동가족목회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기독교실업인, 지역의 목회자 등 좀 더 다양한 크리스찬들과 함께 한동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을 모을 수 있는 연합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고, 또 한동의 정체성을 지켜가길 소망하는 한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

7000 갈대상자

한동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기독교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목적 한동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

후원금액 100만원(1년 100만원, 월정기, 일시후원 가능)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학교 후원팀 054-260-1063 sarang@handong.edu

NAVER 7000 갈대상자

여호수아
장학금이
있어,
한동에서
하나님의
꿈을
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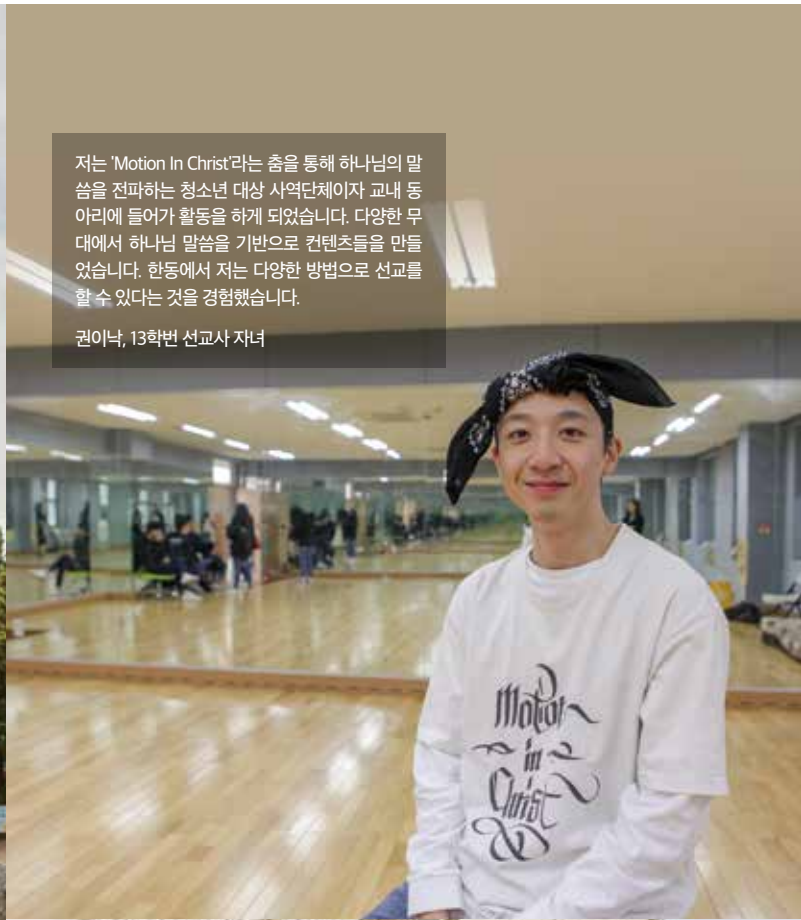
2015년 9월부터 재학생 중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호수아 장학금'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많은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2018학년도 2학기에 총 189명을 선발하고 165,421,700원을 지급했다.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또 학부모들은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학생들과 가족, 목회 및 선교 사역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감사했다.





섬김이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학금이 너무 귀하고 후원자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저도 섬김의 자리를 배워가며 사랑, 겸손, 봉사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혜림, 17학번 선교사 자녀



저는 'Motion In Christ'라는 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청소년 대상 사역단체이자 교내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한동에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권이낙, 13학번 선교사 자녀



저는 여호수아 장학금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중에 잘 흘려 보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또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동에 돌아와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정영광, 13학번 목회자 자녀



사람과 환경에 지쳐있던 저에게 여호수아 장학금은 하나님이 한동을 통해 저에게 건내주신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대가 없이 받은 사랑과 지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한수은, 16학번 목회자 자녀



장학생들의 감사편지

저는 목사님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한동대학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입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목회를 하시면서 기존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학금을 찾던 중에 목회자 자녀를 지원하는 여호수아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기적절 한 때에 놀라우신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해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후원자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내조하시는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을 통해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으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아이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자님의 성원을 보고 느끼면서 그래도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회자자녀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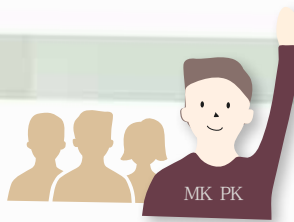
저희 부모님께서는 선교지에서, 현지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다가 인원이 많아지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고아원을 세우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첫 부모님은 저를 낳자마자 버리셨지만 현재의 부모님께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역하시는 고아원에는 매년 많은 봉사자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러 왔다고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다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보든 보지 않든 부지런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거나, 정체도 밝히지 않고 현관문에 아이들의 간식을 놓고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사역지를 방문한 한동대 학생들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 학생은 단체로 오던 혼자 오던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끝나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멋있어 보여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한동대학교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동대학교로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진학을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이 곳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돈 걱정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호수아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장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자녀 K



장학생들의 감사편지

저희 아버지는 20년 이상전국 곳곳을 다니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주 이사를 하고 학교도 옮겨야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 적응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쯤이면 다시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던 상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그러한 환경들,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평 불만을 안고 살았습니다. 전기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 촛불을 키며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없어 저의 환경과 부모님을 원망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에 있으면서, 동기들, 선배들, 새내기 섬김이, 교수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를 도와주시던 교직원 선생님들까지 제가 그 동안 받았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동에서 학문적인 지식 이외에 가장 많이 배운 것을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로서 졸업 후의 진로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분명 이끄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선교사자녀 K

먼저 한동대학교에 여호수아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서는 5년전에 서울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 독고노인들의 돌봄사역을 하며, 평일에는 교육관을 지역사회를 위한 쉼터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약 20여명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 식비와 교재비 등 부가적인 지출에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도우시던 어머니는 몇 달전부터 다른 일거리도 구하셔서 다른 집의 청소를 돕거나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방학동안에 총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학을 반납하고 일에 집중하여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장학금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책 한 권을 살 때에도 상태가 좋지 않지만 최대한 싼책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밥을 먹을때에도 가장 가격이 싼 음식을 골라서 먹으며 돈을 최대한 아끼고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고, 간절히 장학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을 통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타인과 소통하여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내면이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과 희망을 불어 넣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재능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K

마음 따뜻한 한끼! 한동만나!

위로 한숨가락, 사랑 한젓가락
따뜻한 한끼
한동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동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동만나 캠페인.

한동만나는 2018학년도 2학기에는 6,030끼니의 한동만나를 나누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29,331끼니를 한동의 학생들에게 지원하였다.

한동만나가 시작된지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재학생들이 한동만나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도 필수로 소개하는 한동의 대표적인 정직과 배려의 문화가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재학생, 프로젝트 모임, 팀모임 등 (윈터만나, 강사웅 교수팀, 이권영 교수님팀, 마크버즈비 교수님팀, 한동IVF동아리, 경영학입문 수업 등을 통해서 직접 기부에 동참하는 재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한동만나가 시작한 이후, 한동대학교 총동문회와 총학생회의 끼니당 100원의 후원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 학기 졸업하는 한 학생은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식비를 쓰다 보니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한동만나가 생기고 이용한 이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챙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따뜻한 마음 안고 떠납니다.” 라고 한동만나를 통해 받은 따뜻한 마음을 소감으로 남겼다. 한동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한동만나는 이용하는 학생,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배려하는 학생, 그리고 후원하는 학생 등 지금 한동에 있는 모든 학생이 한동만나로 한동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다음 학기에도 한동만나가 만들어 갈 따뜻한 한동인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수업프로젝트 모임으로 후원한

윈터만나 팀

최산성(글로벌리더십 18)

“한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한동만나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한동만나가 한동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추운 겨울에 한동인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핫팩이 생각이나서, 수익금의 전액을 한동만나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인의 아너코드로 운영하고 있는 한동만나처럼, 윈터만나도 양심판매대로 운영을 하였는데 판매금액이 실제 수량과 비슷하게 되어 한동인의 아너코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10만원 프로젝트로 함께 한

강사웅 교수님 팀

최청림(법 12)

“2018학년도 2학기 강사웅 교수님께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팀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더욱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한동에서 끼니를 거르며 추위를 느낄 친구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어묵판매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동만나를 이용한 학생들의 이야기



학기중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식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아프다는 핑계와 함께 편의점을 가곤 하였고 기숙사에 누워서 끼니를 거를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한동만나'를 내가 사용해도 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진 가정형편에 편의점 사용조차 힘들어지자 처음으로 한동만나를 사용했습니다. 한동만나 덕분에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배려에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며 힘들었던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핸드폰 요금, 책값, 교통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식비를 쓰다 보니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한동만나가 생기고 이용한 이후로는 그래도 꼬박꼬박 밥을 챙겨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에서 따뜻한 마음 안고 떠납니다. 사회에 나가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후원제도를 통해 끼니를 걱정하고, 재정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이 한동만나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너코드를 지켜주는 후배들, 한동인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3,000원짜리 한끼조차 먹기 망설이고 있었을때, 한동만나 덕분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밥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고민을 했는데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 굶고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먹은만큼 후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다같이 밥먹을때 걱정부터 앞섰는데 한동만나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정말 후원자님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했는데 한동만나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동만나를 통해 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많은 후원자들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것도 돈을 안 쓰려고 해서 굶은 적이 있었는데 한동만나 덕분에 끼니를 더 잘 챙겨먹었습니다.

잔고가 거의 없어 어떻게 식사를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던 차에 만나를 통해 마음이 담긴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한동만나는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굶지 않고 한 학기도 잘 마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돈도 없고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 부모님께 말하자니 죄송스러워 그 전까지 주먹밥 같은걸로 약소하게 먹었는데, 덕분에 밥만큼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돈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의 절망을, 겪어보지 못 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만나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용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처지인데, 얼마 없는 알바비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동만나가 없었다면 아마 수없이 굶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월 말에 월 초가 얼마 안 남은 그 시기에 잔고를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곤 했었는데 한동만나가 있어서 그래도 끼니를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을 가는 중에 200원짜리 빵 몇 개로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점심에는 한동만나 먹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남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적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꿈 많은 파키스탄 청년 교환학생 "콰데시 플라구스"를 만나다



저를 소개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제 이름에는 '거룩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위치한 Forman Christian College(FCC)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FCC는 한동대와 비슷하게 미국인 교수님이 많이 계시고, 학교의 교목실장이 한국인 선교사인데 제가 한동에 오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향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교목실 성경공부 리더로도 활동했습니다.

한동에 오게 된 계기는?

FCC에서는 한동대와 협력해서 매 학기마다 FCC학생들을 한동대에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FCC 국제 교육부서에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범죄율이 놀라울 정도로 낮고 읽고 쓰는 능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에서의 목표는?

파키스탄의 교육체계에서 부족한 문맹 퇴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공부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문화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동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의 마음을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특별히 변화와 회복을 위해 파키스탄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은?

저의 노트북이 고장 나서 와이파이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실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갔는데, 저는 행정실이 아닌 다른 방에 들어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행정실로 데려다 줬고 노트북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곳 한동인들은 정말 친절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더 많은 교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교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교수님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해 보길 희망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제주도, 부산, 한국의 다른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한국에 온 소녀 "타미무나"



저를 소개합니다.

네팔의 히말라야에서 온 21살 타미 무나(Muna Thami)입니다. 현재 글로벌리더십학부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입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창립자가 한국 출신인 네팔의 데일 공동체라는 NGO에서 봉사하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데일 공동체로 봉사하러 오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꿈꾸며 4년을 기도로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비전을 나눈다면?

한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굉장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때는 농업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경제수준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한국은 관광도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저의 목표는 이러한 발전에 대해 공부를 하고 네팔이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 역시 하나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결정을 할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비전은 좋은 환경 엔지니어, 좋은 시민,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네팔로 돌아가 환경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습니다.

한동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은?

한동대학교는 즐겁게 생활하고, 배움에 있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 대학으로 예배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특별한 경험은 2018년 DMZ 여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갔던 여행은 각기 다른 나라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에 있는 비무장 지대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거대한 터널 안에 들어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관광하며 한국의 왕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나눈다면?

저는 가끔 학교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팔어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네팔의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날들을 소망합니다.



집 떠난 자들이 만든 또 하나의 집, 국제관 국가별 커뮤니티

한동대학교는 Handong Global University 이름에 걸맞게 국제 학생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HIC(Handong International Church) 소속 하에 국제 학생들은 각자의 출신, 문화, 국가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각 공동체는 60여개국 9개의 공동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자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 문화권에 대한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 사랑이라는 가치를 전하고 집을 떠나 온 서로에게 집이 되어주는 국제관 공동체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국 커뮤니티와 몽골 커뮤니티를 만나보았다.



01 다양한 능력자들이 많아요! 중국 커뮤니티



나에게 국제관은?

저에게 국제관은 누구에게든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국제관은 자신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살던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다 보니 한국 사회에 오는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 국제관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여러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여러 나라의 행동 패턴과 스타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에 거주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 포용을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국제관에 속한 모든 커뮤니티는 HIC 소속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뮤니티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며 복음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커뮤니티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학생이 7:3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적은 비율인 상황이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했던, 하지 않았던 타지에서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커뮤니티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중국 커뮤니티만의 자량이 있다면?

중국 커뮤니티에는 소위 말해 다양한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잘 다루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등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음식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 늘 개최하는 컬쳐 나잇 행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동은?

제가 생각하는 한동은, 여전히 좋은 곳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한동에 오래 있으면 하나씩 문제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동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 구성원인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한동은 여전히 나에게 좋은 곳입니다.

한동인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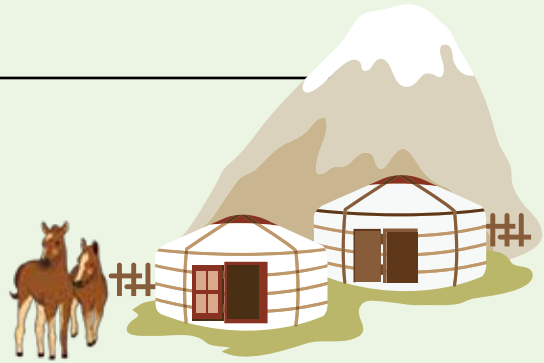
한동대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학교생활을 합니다. 한명이 못한 일이 여러 명이 모이면 가능해지고 한동 구성원이 혼자 못한 일이 도움의 손길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Interviewee



김예향 중국 이름은 진 예시향입니다. 저는 16학번으로 국제지역학, 학생설계 전공으로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족 선교사 자녀로,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제 꿈을 위해 한동에서 전공 공부를 하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02 독립적이지만 '가족' 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몽골 커뮤니티



나에게 국제관은?

제가 생각하는 국제관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국제관은 집처럼 작고 따뜻한 곳입니다. 한동안 온 친구들은 이곳이 어색하고 두려운 곳이지만, 이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안정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나 중에는 휴게실 물 한번 뜨러 가면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오늘의 삶을 나누느라 돌아오는 데 2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관은 집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몽골 커뮤니티를 소개합니다.

몽골 커뮤니티는 국제관 내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구성원이 약 30명 정도입니다. 구성원은 편입생, 교환학생, 한동대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모임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모입니다. 커뮤니티 모임 시간에 대부분 몽골 음식





만들어 먹고 나눔을 합니다. 대개 몽골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기가 들어간 요리를 해 먹거나 학교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 스포츠데이를 열어서 농구, 배구, 줄다리를 하거나 날씨가 좋을 때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독립적이지만 '가족' 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룹입니다.

몽골 커뮤니티만의 자량이 있다면?

저희 커뮤니티는 춤을 제일 잘 추는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마치 커뮤니티의 전통처럼 몽골 커뮤니티가 춤을 춘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또한 항상 컬쳐나잇 때 몽골 전통춤을 프리스타일로 추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저희 몽골 커뮤니티는 100퍼센트 몽골 사람만 있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커뮤니티는 해당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몽골 커뮤니티는 모두가 몽골 사람이라 조금 더 몽골스러운 문화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커뮤니티 에피소드?

모임마다 재밌거나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말한다면, 전공이 살아난 게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제관 코이노니아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했습니다. 가짜 화폐로 땅이나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몽골 커뮤니티에 경영,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언급 하면서 투자와 회수를 했고 나머지 학생들이 전부 이 게임에서 맥도 못추리고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영 경제 친구들은 자신이 배운 전공능력을 발휘해 뿌듯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몽골 친구들이 경영 경제 전공을 하지 않은 것에 억울해하며 자신들의 전공에 관한 게임을 하자고 우겨대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자신이 한동에서 배운 것을 통해 친구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한동은?

한동은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은 신앙적으로도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곳이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동대만의 특별한 점은 '언어의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 친구를 장벽 없이 사귄 수 있는 곳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은 한국 내에서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 외국인 친구와 사귀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 못 하던 한국인 친구들이 우리와 교제 하면서 1년 후 굉장한 발전을 이룬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Interviewee



바이사야 저는 몽골에서 온 바이사야(Bayasy)입니다. 제 이름은 몽골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어, 현재 3년 차입니다. 저는 16학번으로 경영과 학생설계융합 전공으로 Flim directing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동을 소개합니다. "나누미"

한동대에는 학교를 알리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동의 얼굴, 나누미를 만났다.
나누미를 통해 한동을 간증하고 알리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느끼고 배웠을까요?
2명의 나누미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누미는 어떤 단체인가요?

최지혜 나누미는 다른 학교 홍보단과 달리 하나님의 대학을 홍보하는 홍보단이에요. 저희는 저희의 간증을 직접 전하고 저희의 간증을 통해 친구들이 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학교 홍보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나누미에서는 크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SNS 홍보팀, 한입만 인터넷 방송과 중간고사 파이팅을 하는 특별기획팀, 모교방문단 같은 사업을 하는 대외홍보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해요. 이외에도 입학사정관팀에서 진행하는 수시모집 면접을 돕기도 하고 방학 때 여름투어로 지역을 정해 고등학교를 돌아 다니며 학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미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지혜 저는 올해 여름투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 2주 동안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한동대 홍보 활동을 했어요. 작년에는 나누미 신입 기수였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름투어를 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맡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책임감도 들었어요.

Interviewee



최지혜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건설공학과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17학번 나누미 최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나누미 리더를 맡았어요. 나누미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나누미의 각 팀 일을 조율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우 저는 한동대학교 17학번 언론정보를 전공하는 나누미 최선우입니다. 저는 특별기획팀 팀장을 맡고 있어요. 한동대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직접 생각해서 실행하는 팀입니다.



이번에 5천 여명의 많은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처음엔 한동대를 잘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홍보 영상을 보고, 저의 이야기와 함께 학교 소개를 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면, 우리 학교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다시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에게 나누미란?

최지혜 저에게 나누미는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일상에서 나누미 일정이 없으면 할 일이 없고 나누미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나누미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공체험을 통해 알았어요. 한동대에 입학하고 나누미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내가 느낀 한동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학교생활을 하며 나누미를 같이 한다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최선우 저에게 나누미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누미는 사랑의 공동체라고도 해요. 사실 일만 하는 것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저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나누미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아끼고 돕는 과정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이 보였어요. 저는 일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면이 커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나누미 친구들과 대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한동대의 어떤 것을 가장 알리고 싶으세요?

최지혜 다른 대학과 다르다는 것,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교 안에서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밖에 있는, 대학 진학을 앞둔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최선우 저도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가장 알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뜬구름 같고 크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학교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선배들의 모습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한동을 모르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최선우 저는 올해 수시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올해 수시면접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첫 번째 면접이었어요. 작년에는 계획된 행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수시면접을 했기 때문에 의지를 하고 편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번 면접은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야 했어요.

학교에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이 처음 면접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한동에서 성경 끝까지 읽어봤니?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는 다양한 신앙공동체가 존재한다.

하루하루 성경을 통해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한동성경통독학회와 챔가대 성경읽기 모임을 만나보았다.

01 성경을 함께 공부한다. 한동성경통독학회

2009년 시작된 한동성경통독학회(이하 '한통')은 일주일에 한번 모여 리더를 중심으로 성경을 역사 순으로 통독하며 성경의 역사와 문화, 지리, 인물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학회이다. 성경을 분석적으로 나누어 보는 서구적 방식에 한계를 넘어 흐름을 보는 동양의 통독 방식을 함께 사용함으로 성경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성경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기마다 진행자를 세워 교재를 미리 공부해오고 한 주제에 대해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의 경우 성경과 <통성경 길라잡이>와 <성경통독>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한통은 설립 이래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한동인들이 소문을 듣고 '알음알음' 학회에 들어오는 형식으로 2009년 이후 대략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한통을 거쳐갔다. 학회장인 윤진현(상담심리사회복지 16)학생은 "만들어진 이후에 홍보라고는 포스터를 만든 게 전부인데, 이렇게 학회가 계속 유지되고 한동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Interview

하루하루 말씀을 알아가고 배웁니다.



윤진현 (상담심리사회복지 16)

저는 2017년 2학기부터 '한동성경통독학회'에서 주 1회, 딱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학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두분 다 크리스천이시고 모태 신앙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부분 부분의 이야기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이 무슨 책인지 혹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 두껍고 어려운 말들이 적힌 책을 '깨작깨작' 스토리로 읽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딱 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해석하며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서관 복도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한 학기에 한번 성경을 읽는 통독 학회'라는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언젠가는 큰 그림이 보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학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여 앉아 성경을 읽는 그림을 상상한 것과는 달리, 모임에서는 셀장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은 <통성경 길라잡이><통성경학교><성경과 5대 제국> 3권의 책을 중심으로 약간은 생소한 단어들에 낯설었지만, 곧 그것들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한 권의 책으로 통째로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매 주 한 시간 남짓의 모임을 가지며, 성경을 한 이야기로 보는 설명을 편하게 듣고 오면서, 지금은 성경의 큰 이야기를 머리 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이며, 구약은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준비와 예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이루어 내신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적 요소에는 지, 정, 의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의지로서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지성을 통해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큰 하나님의 환상이나 임재, 변화를 체험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심을 나날이 크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평생에 삶의 가장 큰 재산으로의 지식이 될 것이라 믿고 계속해서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02 말씀을 듣고 나누다.

챌가대 성경읽기모임

교목실 산하 주일 예배를 섬기는
챌버와 성가대(이하 챌가대) 단체 안에
성경 통독 모임이 있다.
챌버는 악기를 통해,
성가대는 목소리를 통해 예배를 섬기는 단체이다.

모임의 시작은 2018년 1월 14일 채플 설교 주제인 '성경을 읽자'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 리더를 맡고 있는 홍유송(전산전자 12)학생은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라며 채플 다음 날 챌가대 성경 모임이 시작됐다. 챌가대 성경 모임이라고 하지만 리더 한명과 다른 학생 한명 이렇게 두명이 시작했던 저녁 모임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열명 내외로 아침-저녁 같은 내용으로 '드라마 바이블' 성경 듣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드라마 바이블' 성경 듣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 성원들이 성경을 듣고, 이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드라마 바이블은 총 200회 분량으로 각 회당 30~4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홍유송 리더는 "처음 시작 할 때 주5일 40주면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겠다 싶었고 계획상 12월 7일에 끝내게 된다"라며 "때로는 학교 주변을 걸으면서, 때로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모임의 목표가 성경을 통독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임은 30~40분 성경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며 느낀 것을 삶의 적용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Interview

나 무엇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리



홍유승 (전산전자 12)

최근 듣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12살 예수님 Episode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일행에 없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깨닫게 됩니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가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묻기도 하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지 사흘만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르냐"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왜 나를 찾았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냐"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대답하셨듯, 우리가 하고 있는 챔가대 성경 듣기모임도 자녀들이 아빠가 한 말을 단지 모아서 듣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마저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연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항상 읽기 전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 찬양이 "In everything I do, I want to give You glory, 나 무엇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30-40분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어찌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동이 좋다!

01 결과보다 과정을, 사람을 통해 사랑을!

최주연(언론정보문화 15)

언론정보문화학부는 누군가에게 ‘한동’ 답지 않은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성 있고 주관이 뚜렷한 선배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당황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유순하고 남을 배려하는 교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 했기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언정’ 이아말로 결과보다 과정을 배워가고,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학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공연영상 트랙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연이나 영화라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부딪히며 몇 일 밤을 새곤 합니다. 꿈꿔왔던 일들이지만, 막상 마주해보니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막막함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도 오지만, 십 여명의 스태프들의 고생이 들어간 작품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 다시 일어설 수 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교제하고 배우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동에 오기 전에 저는 늘 반짝이던 결과물을 동경하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정보문화학부에서 사랑 또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직면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영상과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단단한 신앙과 실력을 함께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Interviewee



02 나는 한동의 팀 제도가 좋다

김주은(상담심리사회복지 17)



“너는 어떻게 다른 전공도 그렇게 잘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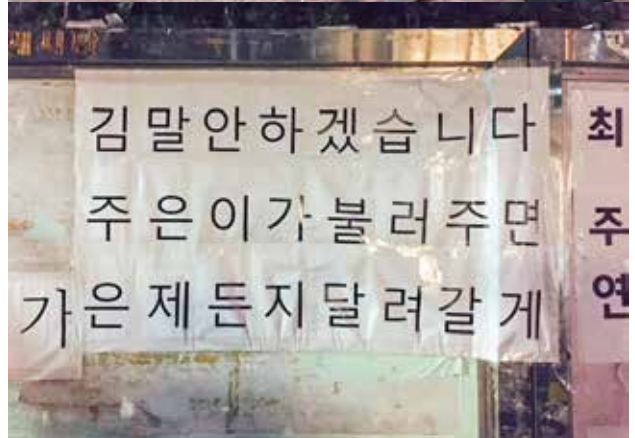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의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부모님께서는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보곤 하셨다. 내가 다른 전공의 이야기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전공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는 한동의 팀 제도 덕분이다. 내가 팀 제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팀 제도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에서 맞이한 첫번째 생일을 잊을 수 없다.

팀원들이 다 같이 고민해서 삼행시를 지어 생일 벽보에 붙여주고, 학생 식당에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축하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도 같은 팀의 다른 학우들의 생일 때에 즐겁게 축하해줬었지만, 축하를 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기분은 또 색다르게 좋았다. 덕분에 서로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문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행시가 붙여지는 벽보를 보는 것은 한동에 와서 생긴 나의 또 다른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삼행시를 발견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또한 팀 제도 속에는 시험기간에만 볼 수 있는 중간고사 파이팅·기말고사 파이팅 문화도 존재한다.

수많은 과제와 시험에 몸과 마음이 지쳐 기숙사로 향하면, 로비에는 팀에서 준비한 응원문구와 간식들이 나를 맞이하곤 한다. 바쁜 삶속에서도 팀 구성원을 생각하며 시간을 쪼개어 준비한 그 마음에 감동 받으며 다음 날도 힘내서 공부할 힘을 얻는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는 문화는 팀 제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동의 팀 제도가 정말 좋다!





비빔 준비해야 할 것들은 산더미 같았지만,



후원 안내

갈대상자(일반후원)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매월 1만원 이상, 혹은 일시 후원으로 한동을 더욱 견고히 엮어가는 갈대상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7000 갈대상자(일반후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 필요가 절실한 한동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매년 100만원 이상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문(졸업등문 대상)

한동문은 오직 '한동의 졸업 등문'만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으로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한동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줄 바로 그 한 사람, 한동의 졸업생, 한 동문을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천사(재학생 대상)

'한동'의 밝은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한동천사는 매월 1천원 이상 후원하는 재학생 갈대상자 캠페인입니다. 한동천사에 참여함으로써 오늘의 한동과 내일의 한동을 이어가는 한동 사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목회자·선교사 자녀 후원)

한동의 목회자·선교사 자녀(재학생의 약 20%, 2015년 기준)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후원자와 1:1 매칭,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만나(재학생 식비 후원)

한동만나는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함께 채워,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아너코드에 따라 이용하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을 후원하시면 약 한 동만나 4끼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입니다. 그래서 한동을 졸업한 선배들이 첫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후원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한동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는 대부분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배워가며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생활관부터 도서관, 강의실 등 다양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하용조 장학금(장학, 연구 및 국제화 활동 후원)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한 설교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순종했던 비전 메이커였던故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갈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하용조기금 하나은행 132-890008-58904

※ 갈대상자, 7000 갈대상자는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발전기금과 세금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발급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 후원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 ksc@bskb.com

신규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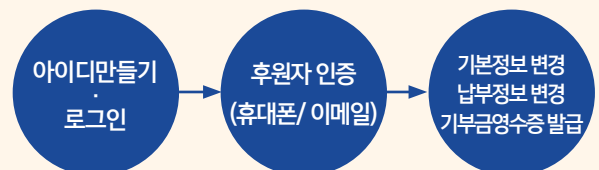
2018.7.1~2018.12.31, 235명

Abrianna Kim	김성현	김천홍	박성은	송민수	유영일	이예림	이한왕	정호선	한재경
강병훈 손정연	김성희	김태현	박성주	송재용	유지민	이용섭	이혜정	조미라	한충규
강상훈	김소연	김한철	박성호	송재원	윤유정	이용준	인경화	조복심	허요한
강재희	김연석	김현주	박유경	신순아	윤혜선	이용현	임승윤	조성범	홍설영
강창규	김영성	김혜성	박종민	신승호	은성숙	이유빈	임은혜	조승호	홍정아
공영주	김영은	김효숙	박차님	신시은	이건	이은숙(방송록)	장군성	조아라	홍태준
구자염	김예은	김희영	박현영	신왕식	이동우	이은주	장다영	진건환	홍현성
금미라	김유리	나상숙	박혜영	신종렬	이명진	이은증	장영진	진유정	홍희철
김가은	김유신	남찬교	박혜원	신홍철	이문섭	이인규	장윤희	천선옥	황은상
김광천	김은경	노윤기	박희주	안명규	이미영	이재국	장은석	최경숙	황춘숙
김기섭	김의성	도근해	백승필	양민양	이미자	이정우	전범권	최경희	
김동훈	김의중	류석모	백정성	염은선	이미혜	이정호/유은선	전성진	최배가령	
김동희	김인순	류현우	서민혁	오세현	이보람	이정희	전용우	최수진	
김명희	김정보	마영건	서용섭	오완순	이상옥	이종승	전필규	최승규	
김미선	김주섭	문옥경	성명	위용인	이상희	이주화	정경찬	최아인	
김민정	김주신	문지영	소영화	위희연	이성원	이준석	정기웅	최지호	
김상남	김준식	박관수	손배성	위희정	이승진	이진우	정오덕	최진아	
김선미	김지원	박미선	손정기/노해옥	유석주	이승철	이창석	정진호	하지원	
김성순(노하원)	김진영	박선영	손정학	유순희	이영수	이철원	정형숙	한예희	
김성아	김창순	박성기	송돈의	유영래	이영자	이춘화	정혜주	한은주	
(주)인스월드	늘사랑교회			에이오엘그룹건축사사무소			제일좋은내과		한길교회
(주)제이케이트레블	디와이엠글로벌주식회사			엄재희_제이스토리아(주)			삼성증권주식회사		호성알파산업(주)
(주)히즈파워텍	맥퀸즈 코리아(김동민)			예빛153학원			피닉스리더십센터 주식회사		흥해제일교회
갈대상자선교회 오창극	북삼장로교회 찬양팀			오준환(열린이비인후과)			주식회사 엘에이에치		
강사용교수팀	새생명교회			이상준(보람의원)			창원진주팀학부모기도회		
강서김포넛팀	서울서초넛팀학부모기도회			이용희(국인표국중회)			태성기업 주식회사		
고령읍교회 제20여전도회	서일세무회계사무소			일산넛팀학부모기도회			포항인터내셔널커뮤니티교회		
광주이천 학부모기도회	세무법인 길			장충단성결교회			포항중앙침례교회		
교양특문팀	순복음 바라봄교회			재단법인 온누리 선교재단			학부모기도회 세종팀		
HYON HELEN HAERYUN	신앙특문수업팀			제이스특허법률사무소			학부모기도회 파주팀		



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가입하세요

<http://sarang.handong.edu>에 가입하시면
회원 정보 열람, 기본정보 변경, 납부정보 변경,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신청서

후원자정보

성명[교회/개인/기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출석교회
구분	☐ 일반인 ☐ 기업 ☐ 교직원 ☐ 학부모(자녀성명/학번:) ☐ 동문(학번:) ☐ 교회 ☐ 기타

약정정보

후원금액	□ 일회 □ 정기 월 원 원
후원종류	☐ 7000 갈대상자 ☐ 갈대상자(일반) ☐ 한동문(졸업동문) ☐ 여호수아 생활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120만원, 월10만원) ☐ 여호수아 등록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600만원, 월50만원) ☐ 팀워크(교육선교) ☐ 한동만나 ☐ 첫 열매 ☐ 건축기금 ☐ 기타지정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발행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미발행

부오터
남바나

□ 자동이체 (CMS)	이체일 □ 10일 □ 23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서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무통장 입금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후원금액, 후원목적 선택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교회, 학번, 자녀성명,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정보 민감정보 종교, 출석교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출금이체서비스(금융결제원), 기부금 납부 및 기부자예우, 모금통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제160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예우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_____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_____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한동대학교 총장 귀하

귀하

(학)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 대외협력팀 전화 054.260.1063 |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위 신청서를 핸드폰 촬영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신번호 010-9260-1063



무통장 입금 안내

후원종류	목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갈대상자/ 7000 갈대상자	일반기부금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
한동문/ 한동천사	일반기부금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자녀 교육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대학교여호수아
팀워크	개발도상국 외국인유학생 교육	하나은행	518-910023-11205	한동대학교
한동만나	가계곤란 재학생 식비지원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첫열매 /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용도 지정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및 신청방법



전화

054.260.1063



팩스

054.260.1069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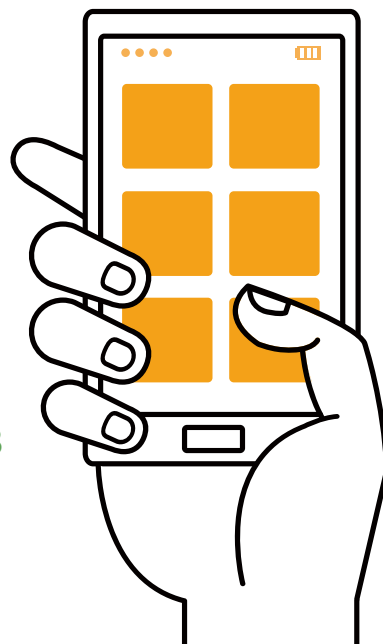
sarang@handong.edu



발전기금 홈페이지

sarang.handong.edu

후원 신청서를
핸드폰 촬영 후
문자 전송하면
등록가능
010-9260-1063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NAVER** 7000 갈대상자 ▾

후원금액 1년 100만원

사용목적 한동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참여방법 신청서 문자발송 010-9260-1063 | 온라인,스마트폰 <http://sarang.handong.edu/7000> | 우편발송

입금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학) 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054-260-1063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약 89%로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예배이며,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공, 학년 구분없이 30-40명이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캠퍼스와 생활관에서 전인교육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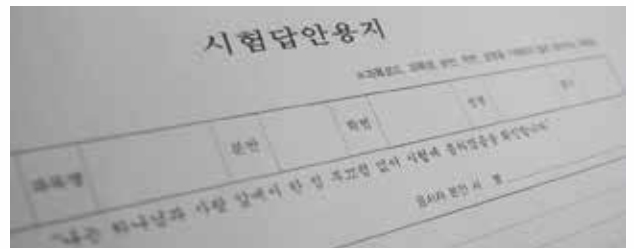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의 훈련소입니다.

재학생의 약20%가 선교사,목회자 자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익힌 언어와 다양한 문화 경험, 친화력 등의 강점과 함께 한동에서 훈련받으며 글로벌 리더,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온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학의 학생만족도를 나타내는 한동대의 중도탈락률은 1.3%로 전국 사립대중 가장 낮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2016년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정직을 배웁니다.

무감독양심시험으로 대표되는 한동명예제도와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식사하는 한동만나는 한동의 정직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